

# 濟州文化의 社會科學的 理解에 關한 研究

— 共同體意識을 中心으로 —

高 昌 熙<sup>\*</sup>

## 1. 문제의 제기

제주문화는 제주사회에 매여 살아왔고 살아갈 민중이 호흡하여 짓는 문화를 말한다. 그러니까 민중은 제주사회의 공간적·시간적 장(場)속에서 살아가면서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문화는 제주인 모두의 삶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표현으로 창조되고 드러나고 펼쳐진다.

제주문화의 총체적 의미를 규명해 보는 이론적 틀을 모색하는 이 글은 대략 네 가지 시도들을 담고 있다. 첫째 제주문화의 형성적 의미를 미시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분석 틀을 구성해 보고, 둘째 제주문화의 의미를 거시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분석틀을 구성해 보고, 셋째 제

---

\* 濟州大學校 行政學科 專任講師

주문화의 공동체 의식이 갖는 성격을 정리해 보고, 마지막으로 주문화의 퇴색 요인을 분석틀에 비추어 정리해 보고 주문화의 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미리 밝혀 두어야 할 점은 이 글이 주문화의 총체적 의미를 규명해 보려는 뜻은, 문화를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다루려는 것이다. 개인의 경험과 사회구조적 차원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보다 의미있는 탐색을 위한 시론적인 노력의 시작으로 이 글은 쓰여지는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우선은 분석적 틀을 모색하는 데서 시작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상학적 이론에서 삶과 문화의 의미를 정리해서 미시적 차원의 분석틀을 구성하고 정치·사회·경제의 구조와 관련지워서 거시적 차원의 분석틀을 구성한다.

실질적인 논의의 초점은 주문화를 뒷받쳐 주는 공동체의식의 성격을 밝히고 공동체의식을 살리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물론 가설적인 것에 불과하다더라도 주문화의 핵심적 특성이 공동체의식에 있다고 상정하는 이상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이것의 특성과 내용들이 언급되어야 한다.

다음은 공동체의식에 근거하여 형성된 주문화의 퇴색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공동체의식의 재건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여기서 과거와 내일의 연결이라는 시간적 관점에서 공동체의식의 재건을 검토하는 것과 처방적 관점에서 공동체의식의 재건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과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 2. 삶과 문화의 미시적 분석틀의 모색

우리가 창조적인 시각에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의 알맹이가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알맹이를 보다 나은 쪽으로 이어나가야 할

문화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의 질문은 문화를 정의하는 데서 시작된다. 논의의 매듭을 풀어 나가기 위해 문화의 정의가 내려져야 되는데 여기서의 문화는 특정한 인간 집단이나 사회가 나름대로의 삶을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자 힘써 만들어 내는 일체의 지속적 행위와 그 결과 드러나는 삶의 양식과 삶의 의미의 총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문화를 정의하는 데는 근본적인 가정을 전제로 삼는 바 문화는 삶의 표현들이 합해져서 의미있게 드러나는 것이며, 삶은 문화의 힘에 이끌리어 보다 의미있는 삶을 지어 나간다. 따라서 삶없는 문화란 있지 아니하고 문화없는 삶이란 동물적 생존 정도를 추구하는 바가 된다.<sup>1)</sup> 삶과 문화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으면서 모양을 갖추어 나가는데 삶은 너와 나의 삶을 맞추면서 우리의 삶으로 발전되어 문화의 틀을 갖게 되고 반대로 문화는 개개의 구성원에게 너와 나의 삶에 의미있는 규범으로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자극과, 한편으론 보다 질서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구속을 동시에 부과한다. 이렇게 삶의 총체로서 문화를 생각할 때 현상학적 이론에 기대어 삶과 문화의 미시적 분석틀을 모색하는 근거를 찾게 된다. 현상학은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의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의미가 나와 너의 의식으로 연결되어 어떻게 우리 의식으로 되는가에 집약된다. 슈츠의 현상학은 자아를 중심으로한 경험과 의미가 어떻게 의식의 구조를 갖추고 이것이 일상의 생활세계의 요소와 구조와 앵커어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되는가에 대한 지평을 열어주며, 이 글이 구성하는 삶과 문화의 미시적 분석틀의 모체가 된다. 슈츠는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생활세계는 복수적 현실(Multifl Realities) 중에서 하나의 제한된 의미의 영역에 불과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에 의하면 현실을 구성하는 것은 대상의 존재가 아

1) 金禹昌, <사회공간과 문화공간의 창조>, 《한국사회의 발전논리》, 홍사단 출판부면, (서울: 홍사단 출판부, 1984), pp. 178 ~217.

나라 우리의 경험의 의미이다.<sup>2)</sup> 따라서 상이한 경험의 의미는 상이한 현실을 구성하며, 하나하나의 현실은 하나하나의 의미의 영역의 한계 속에서만 현실적 중요성(accent)을 갖는다.<sup>3)</sup> 아울러 매일매일의 생활세계는 다른 모든 제한된 의미의 영역의 한 모형이며, 다른 영역은 생활세계의 변형이다. 이렇듯 매일매일의 생활세계를 일차적현실(Paramount reality)로 받아 들일때 사람은 생활세계를 첫째 주어진 것으로서 받아 들이고, 둘째 생활세계는 사회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해서 언어나 제도 행위의 패턴등을 창출해 내고, 과학과 상식의 요소를 제공해 주기까지 한다는 것이다.<sup>4)</sup> 따라서 매일매일의 생활세계를 살아가는 삶은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문화를 창출하는 정신적 창조성을 의미하고, 우리라는 개념은 역사적·문화적 질서 속에서 태어나 주어진 현실세계를 경험하면서 나오는 것이다. 삶의 뿌리는 생활 경험인데 경험은 상황적 요인에 제약을 받고 그 상황은 하나의 명백한 의미의 영역 안에서 생긴다. 따라서 상황은 경험의 기본단위이고, 상황은 경험의 구조내에서의미를 갖는다. 경험의 특성은 첫째 시간의식과 관련된 해석의 흐름으로서 시간적 일시성을 가지며, 둘째 모든 삶의 경험은 미래라는 관점을 겨냥하기 때문에 미래전망적인 기대적 의미를 내포하는 지평적 성격을 가지며, 셋째 생활경험은 현실을 해석해서 현실에 반영된 것이기에 해석적이다. 따라서 생활경험에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험의 구조와 의미의 맥락은 만나게 되고 접합이 된다. 넷째 해석적 활동의 매개로 생활경험은 친밀성을 갖게 되고 전형적인 형태를 갖게 되

---

2) Alfred Schutz, "On Multiflural Realities," *Collected Papers*,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3), pp. 207-259.

3) 위의 책.

4) 金弘宇, 〈現象學과 社會科學〉 《사회과학방법론 비판》, 청람사편, (서울: 청람사, 1983), pp. 205~234.

며 상호간의 경험을 인식하고 통합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생활경험은 이러한 네 단계를 거치면서 특정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으로서 특정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형태의 양식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생활경험의 흐름을 단단하게 해주기도 하고 새롭게 개편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sup>5)</sup>

경험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의 근원으로서의 의식과, 의미의 지속적인 교환으로서의 의식의 흐름 때문일 것이다. 의미의 문제는 과거와 현재의 경험의 뜻과 미래의 예측을 포괄하여 형성되므로 시간에 의존한다. 또한 경험은 의미를 내포하는 의미의도(meaning-intention)와 관련될 뿐더러 의미의 성취가 요구되는 바, 이해와 의미는 깊은 관련을 맺는다. 바로 여기에서 자아는 이해와 의미를 형성하는 주체가 되고, 의미는 자아와 자아의 경험을 연결시켜주는 동적 관계를 형성하는 힘이 되고, 그 결과 의미는 성찰적인 성격을 갖는다. 자아는 변화하는 통일적인 주체로서 의도적인 행동을 통하여 삶을 확인하는 독특한 의식의 통일체가 개별적인 경험적 구조를 지닌 개성체(個性體)이다. 이러한 자아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경험적 의미에 대한 해석적 활동을 통해 우리의 의식으로 연결되고, 사회 환경적으로 말하면 일을 통하여 자아의 전체성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연대성을 갖게도 한다.<sup>6)</sup>

또 이러한 일상세계를 구조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소는 자연적 태도, 지식의 체계와 사회적 행동이다. 사회적이고 자연적 태도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지배하는 근본 원리로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동일한 대상에 대한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비교하는 거울같은 실체이다. 이

5) Mary F. Rogers, *Sociology, Ethnomethodology, and Experience; A Phenomenological Critiqu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pp. 32 ~ 66.

6) 위의 책.

는 서로의 견해를 교환해 보고 준거체계의 일체여부를 비교해 보고 상대적이고 자연적인 세계관의 형성까지 가능케 해주는 준거이다. 이것이 경험을 유형화, 객관화 그리고 상징화 시켜주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sup>7)</sup> 상식은 문화적인 의미에서 사회성의 징표이고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인간행위의 구조일 뿐더러 공공생활에 뛰어드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언어에서 이러한 상식적 지식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사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들의 의미와 구조, 자연과 사회생활에 대한 해석적 구조가 언어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sup>8)</sup>

언어에서 공통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의 바탕도 발견될 뿐더러 공동체의 식이 와해되는 암시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식적 지식은 오늘날 어제를 동여매어 미래에로의 교량을 제공해주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이지만, 실제적인 목표에 부합되는 행동을 유도하는 의미에서 현실지향적이다. 문화적으로 지식체제는 특정한 자연적 세계에 연관되어 전수된 방법체계(A system of know-hows) 이고, 상황적으로 볼 때 지식체제는 과거로부터 전수 받은 지식체제와 직접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식체제가 타협된 것으로서 경험들과 사회성이 상호관련되면서 형성되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식체제는 마치 지도처럼 삶의 세계에서 현재의 위치와 오늘과 내일에 지향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sup>9)</sup> 사회적 행동은 묵시적이든 현시적이든 자신의 삶으로부터 주관적으로 유출되는 의미있는 경험인 거동(conduct)을 통해 나타난다.

7) Alfred Schutz, *Reflections on the Problem of Relevance*, ed. and ann. Richard M. Zan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pp. 57~58.

8) Rogers, 앞의 책.

9) Alfred Schutz, *On Phenomenology and Social Relations*, ed. Helmut R. Wagn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p. 241.

행동은 미래지향적이기에 “때문에 동기”(because motive)보다는 “하기 위하여”(in-order-to motive)의 동기적 맥락에서 배태될 뿐 더러 지식체계에 근거를 둔다.<sup>10)</sup> 또한 사회행동은 상호주관적 동기에서 의한 사회적 상호관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타자지향적이다. 여기에서 너와 내가 상호지향적일때 우리의식이 나타난다. 삶의 세계의 구조는 주어진 공유의 세계에 대한 시·공간적 배합에 의해 구체화되는 인간의 의도를 받아들이면서 창출된다. 이러한 생활세계에서의 영속적인 우리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경험과 의식의 의미에 의해 맺어지고, 자연적 태도와 사회적 태도를 포괄하는 개개의 지식체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일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현상학적 논의를 원용하여 삶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는 미시적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도표화(표 1)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모델은 자아의 삶의 경험이 문화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일상생활 세계에서의 자아의 경험은 해석적 활동을 통하여 의미가 있게 되고 갖가지의 삶의 의미는 형성적 활동을 통하여 의식이 형성되고 의식은 행동과 일을 하면서 사회활동으로 표출되고 이러한 일련의 사회행동들이 반복적으로 구조화되어 문화의 틀을 갖게 된다는 논리로 단순화시켜 본 것이다.<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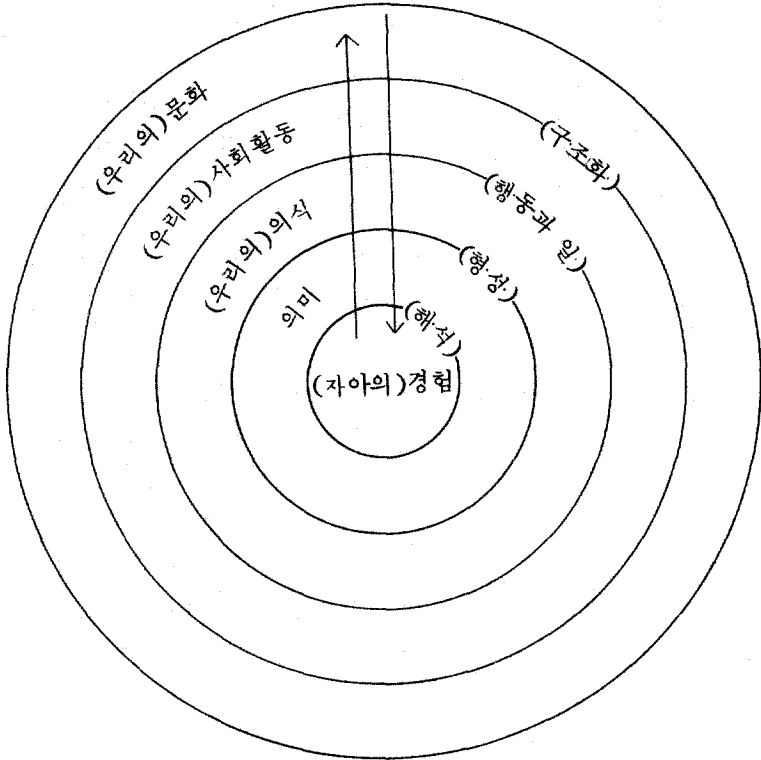
10) 金弘宇, 앞의 글.

여기서 행태(behavior)와 저동(conduct)은 구별되며, 행동(action)과 투안(project)의 관계를 두가지 기본동기, 즉 “하기 위하여 동기”와 “때문에 동기”와를 연결시키는데, 전자가 행동의 의미이고 후자가 투안의 의미이다.

11) Alfred Schutz,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trans. George Walsh and Frederick Lehnert,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7) pp. 61~68.

12) 이 모델은 삶과 문화의 관계를 너무 틀에 박힌 듯한 설명을 시정해 보기 위해서 설정된 것인데 자의적인 구성이 강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표 1. 삶과 문화의 미시적 준거틀



### 3. 문화의 거시적 준거틀의 모색

삶과 문화의 미시적 구조가 개인의 삶과 문화와의 연결고리라면 문  
 문화의 거시적 틀은 문화의 생성과 발전을 받쳐 주는 정치·사회·경제  
 의 구조적 맥락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문화를 여러 사람의 경험과  
 의식이 모두어진 정치·사회·경제적 공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파  
 악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공동체라 할 수 있고, 여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일종의 균형있는 삶의 방식을 추구할 뿐더러 지리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으로 자족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 지리적 공간은 환경적·기후적 상황 속에서 사는 모든 사람이 서로의 다양한 개성을 발전시키면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를 갖는 공간일 뿐더러, 외부환경과 구분되어 문화가 특유한 성격과 의미를 담아 가면서 발전되는 공간이다. 여기에서 문화는 지역적 차원에 근거한 특수성과 보편성의 두 계기를 가지게 된다. 말하자면 제주문화는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서 특수성을 지님으로 해서 한국문화의 보편성과 연결되는 체계를 이룰 뿐더러 나름대로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제주문화의 특수성도 중요할 뿐더러 이에 못지 않게 보편성도 중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공간 속에서의 현실적 결정은 경제적인 힘과 정치적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 그것은 복합적인 사회활동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sup>13)</sup> 경제는 나름대로의 삶을 세워 나가는 노동이나 생산양식과 이에 걸맞는 경제적 활동을 추구하는 동시에 문화를 형성해 주는 기본적 받침대 역할을 한다. 삶의 총체적 표현으로서의 문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한도의 경제적 잉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잉여는 어느정도 규모를 지닌 사회에서 축적될 수 있어야만 된다. 어차피 개인 또는 개개인의 경영을 서로 결합하여 살아 가도록 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은 공동체이고, 공동체에 내재하는 생산의 단위는 노동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은 생산수단의 소유 단위인 토지 및 노동수단과 노동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생산 및 교환을 거치면서 생활의 소비단위를 조성하고, 재생산 과정을 창출한다. 이렇게 경제활동은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족적인 힘을 비축하고, 이 힘에 의하여 문화를 세워주는 현실적인 힘으로

13) 金禹昌, 앞의 글.

庚結仁, 〈제주문화의 재조명: 人類學的 接近〉, (濟大新報, 1984. 10.2).

작용한다.<sup>14)</sup> 경제와 문화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체적 문화를 구성해오다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경제적 생산양식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문화의 내용에도 급속한 변화를 야기시켰다. 생산양식의 기계화는 단순한 소규모 가내공업에서 복잡한 대규모 대량 공장공업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성장은 많은 수의 인구가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 시간을 향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문화의 내용과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구성되는 문화의 다원주의에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 결과 다양한 문화들간의 갈등도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듯 경제는 문화를 결정하는 현실적인 힘이고, 문화는 경제적 생활의 충일과 윤택을 상승시키는 이상적인 힘으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

정치는 구체적인 지리적 경제적 삶의 결이나 매듭을 연결시켜주고 여러가지 삶에서 나타나는 이해를 조정해주는 통합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이 전체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역사적인 전개과정에서 통일된 전체로 이루어지지만 달리 생각하면 정치와 문화는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 형성된다. 문화가 현실 능력을 가지지 못할 때 의도적 총화로서 사회의 전체적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이고 역사적 발전의 결과로서 하나의 일관성 있는 상징체제로 성숙화 시킨 것이 문화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나 문화의 관계가 실용적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이 각기 다른 이익을 조정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정치체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성원들이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민주체제가 공정하고 이상적인 것일 것이다. 공동체의 민주체제가 개인주의적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에

14) 鹽澤君夫, 《아시아적 생산 양식론》, 지양사 편집부역, (서울: 지양사, 1984), pp. 27 ~ 32.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삶과 행복에 대한 권리에 근거한 동등권을 인정하면서, 공동체 성원들의 유기적 일체성을 깨닫게 하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집단의 민주적 삶은 자치능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방편이면서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으로서의 민주적 생활은 개별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합리성의 원리를 낳게 하고 이것이 내면화 되어 이성적 자각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공동체적 정치의 원리가 개체적 관점의 제약과 이익을 넘어서서 보편적 인간성의 관점으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어 공동체의 인간관계가 권리의 평등성만이 아니라 봉사과 사랑 또는 희생에 의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정치는 생활세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실적인 결정일 뿐더러 동시에 그것을 넘어가는 초월적인 요소도 가진다.<sup>15)</sup> 그런데 이러한 초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와 문화가 이렇게 상호보완적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호배타적일 때 정치가 문화를 조작할 수도 있으며 문화와 정치가 따로 따로 유리된 채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사회는 문화가 개성적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드러내면서 펼쳐지는 공간이다. 이러한 사회적 공간은 문화적 표현으로 양식화된 모범들과 전통적 문화의 유산을 포함하는 문화의 외면적 장(場)이다. 어쩌면 사회는 그 자체로서 우리의 삶의 마당이 될 뿐 아니라 적절하고 자율적인 구성을 통하여 개개인의 삶과 문화의 개방성을 유지해 준다. 따라서 문화의 활동을 포용하는 근본 테두리로서 문화가 생성되고 발전되고 다양한 조화를 이루는 영역이다. 사회가 자율적일 때 문화의 조화롭고 다양한 개화가 가능하지만 사회가 정체적일 때 문화는 의미를 잃어

15) 金禹昌, 앞의 글.

Dennis Coulet, *The Cruel Choice: A New Concept in the Theory of Development*, (New York: Atheneum, 1973), pp. 263, 272.

퇴색하며 활력을 상실해 버린다. 이렇듯 사회의 성격에 따라 문화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문화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을 제공할 수도 있다.<sup>16)</sup>

지금까지의 논의는 문화가 지리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 요인들이 만들어 내는 복합작용이다. 환언하여 얘기하면 문화의 통합은 여러가지 요건의 다양한 발전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결국 문화는 정치·사회·경제의 다양한 작용의 결실로 드러나면서 다양한 조화와 통일성을 추구한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구성하면 문화를 이해하는 거시적 준거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 준거틀(표 2)이 보여주는 것은 문화가 지역적 공동체의 근거위에서 정치·사회·경제와 상호작용하면서 통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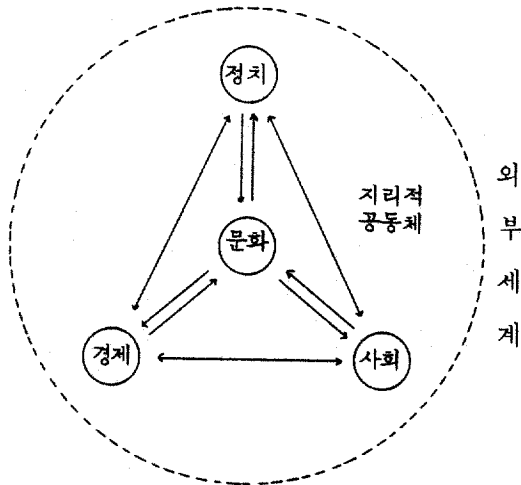


표 2. 삶과 문화의 거시적 분석틀

- 16) 韓相震, <官僚的 權威主義와 韓國社會>, 《韓國社會의 傳統과 變化》, 서울대 사회학연구회편, (서울: 범문사, 1983), pp. 261 ~ 297.
- 17) 문화의 거시적 분석틀은 문화가 정치·사회·경제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각 분야별로도 상호작용 한다는 것을 도표화해 본 것이다.

#### 4. 제주문화의 형성적 의미

위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따로 따로 제시했지만 사실은 제주문화를 연구하는데 통합시켜 사용해 보려는 것이다. 미시적이고 거시적 차원의 연결된 논리에서 제주문화의 어제와 오늘을 분석해 보아야 제주문화에 대한 전망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문화의 형성적 의미는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고찰되고 설명되어져 왔는데 특징적인 고찰은 언어, 민속 분야와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구조적 측면과 인류학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제주문화의 특수한 성격은 대체로 환경적 조건과 연관되어 생겨난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들의 함축적 표현이 삼다와 삼무의 문화로 상징화되는 듯 싶다. 삼다가 지리적 환경적 특성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삼무는 경제적·사회적 삶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볼 때 삼다가 삼무보다 먼저 생긴 말인듯 하고 우리 민족과 밀착된 숫자(三)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구전적 언표(言表)로 이해될 수 있다. 바람·홍수·가뭄의 재해가 많았다는 예전의 삼다나 바람·돌·여자가 많다는 지금의 삼다가 한결같이 제주도의 어려운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특징적으로 기술해 주는 것이라면 삼무는 이와같이 메마른 땅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걸어온 제주인의 삶의 의지와 이러한 의지로 형성한 문화를 단순화 시킨 상징적 정신으로 표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거지가 없음은 어려운 역경과 가난속에서도 자주·자조·자강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려는 자력적인 의식의 표현이고 도둑이 없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순박하게 살면서 질서를 지켜나가는 정신으로서 그 밑바탕에 자존·자강 의식이 깔려 있고, 때문이 없음은 서로 믿고 협동함으로써 너와 나의 이해를 조화시켜 나가려는 자존의지가 배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8)</sup> 삼무정신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제주사회의 민중들이 주어진 정치·경제·사회적 역경 속에서도 굴

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축적시키고 체질화시킨 정신과 근면하고 소박한 삶에 배어 있는 의미를 단순화 시킬 때 소중한 정신을 형식적인 눈요기감 정도로 여기고 엄숙한 삶을 구호적인 삶으로 형식화해 버릴 가능성이 크고, 아울러 학문적으로는 삼무의 근원을 파헤치기에는 삼다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속전(俗傳)적인 성질이 강하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무의 양속(良俗)은 제주인이 스스로 자화자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라 외부인이 상호비교의 견지에서 객관적으로 제주인의 생활양식과 제주문화의 특성을 집약시킨 표현이라 한다.<sup>19)</sup> 이렇게 생각할 때 제주인의 삶과 문화를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할 빌미가 생기며 분석의 초점은 공동체의식에의 조명으로 모두어진다. 왜냐하면 삼무가 제주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들어낸 문화의 표현이라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문화를 받쳐주는 것은 제주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주어진 사회공간 속에서 생성시킨 공동체적 경험과 의식과 사회적 행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중앙에 종속되어있고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자급을 위해 최소한 양식을 위한 밭농사 위주의 노동이 중심이었고 사회적으로 미분화된 농경사회적 상황과 어려운 환경조건을 이겨 나가는 삶의 과정은 당연히 너와 나의 결속을 다지면서 공동체적 터전을 더불어 가꾸고 공동체 의식을 더불어 드높이는 공동적인 운영방식과 조직을 창출하게 됐고 이것이 사회적 행동을 단단히 묶어 문화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제주문화의 핵은 공동체의식이고 이러한 의식을 정리해 보아야 한다.

첫째 자연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제적인 삶의 지혜를 드러내주는 예로써 연자매(물고래) 관리 집단을 들 수 있는 데 개인의 힘

18) 金榮敦, <三無精神의 研究目的 및 그 意義>, 《濟州道民의 三無精神》, 濟州道면, (제주: 일신사, 1983), pp. 11-24.

19) 玄容駿, <三無精神의 研究>, 《濟州道民의 三無精神》, 濟州道면, (제주: 일신사, 1983), pp. 50 ~ 70.

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이웃끼리(대략 20 호씩) 돈과 노력을 모아 동네별로 공동의 힘으로 만들고 공동으로 모여 의논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이웃끼리의 인정이 깊어지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됐다. 용수집단(用水集團)의 형성도 물이 어려운 상황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협력과 노력을 통해 이겨 나갔을 뿐더러 공동관리를 통해 질서를 존중하는 의식을 키워 나갔으며,<sup>20)</sup> 초가 지붕을 잇는 새(띠)를 얻기 위하여 새왓이라는 밭을 공동으로 관리해 왔는데 이 새왓은 중산간 지대의 토심(土深)이 얇은 곳에서 재배되기에 공동으로 땅을 개간하고 공정하게 분배하여 이용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적 의식이 함양되었다.<sup>21)</sup> 또한 수눌음이나 번쇠<sup>22)</sup> 등도 동네 사람들끼리 노력을 교환하고 서로 도와주는 사회경제적 연대감을 강화시킨 지혜의 산물이다. 계류(契類)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끼리의 친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킨 계기와 공간을 마련해 준 것으로 케왓(契밭) 그물집(漁網契) 등의 운영을 통한 경험들도 그러한 것들과 유사한 것이다. 증답(贈答: 반배우기나 그물배우기) 같은 관행도 음식물의 분배, 금품의 부조, 기타 물품의 교환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제순환과 자급자족 체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었을 뿐더러 주고 받는 행위속에 인정과 신목과 유대감이 두터워져 공동체적 의식이 강화되었다.<sup>23)</sup>

이러한 경제적 지혜는 사회적인 조건과 연결되거나 결부되어 나타나는데 경제적 독립을 강조하는 사회적 조건은 농업소득의 평균화를 가

20) 윗글.

21) 宋成大, <제주문화의 재조명: 三無精神을 中心으로> (濟大學報, 1984.9.15)

22) 수눌음이나 번쇠는 두레의 제주도식 형태로서 두레와 비슷한 사회적 기능을 한 것 같다.

(愼鏞廈, <두레 共同體와 農樂의 社會史>, 《한국사회연구》, 한길사편, 서울: 한길사, 1984), pp. 11-53.

23) 玄容駿, 앞의 글.

저와 큰 부자도 없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없게 형성되었을 뿐더러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빈번한 접촉과 대면을 통해 친밀하게 되기 때문에 상호의 체면을 중시하게 되고 도둑질 하는 행위나 거지행위가 용납될 수 없었다. 또한 경제적인 독립심의 강조는 재산 상속제도나 가족의 형태에도 나타나는 데 재산 상속제도를 보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균등상속제가 행해졌고 결혼과 동시에 분가시켜 핵가족을 이루어 독립된 생활을 하게 했다.<sup>24)</sup>

정치적인 지혜를 드러내는 것으로는 향회라는 마을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치조직이 있는 데 마을사람의 의사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 마을 사람을 위해 일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다. 또 마을의 전체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을사람의 전체모임을 소집하여 결의하고 시행했었는데 여기서 공동체 의식은 물론 민주적 자치능력이 싹트는 것이다. 이 향회는 아울러 부락제라는 것을 주관했는데 하나는 유교식 포제(脯祭)와 무속식 당굿이 그것이다. 포제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남성들의 축제이고, 당굿은 마을 공동의 소원을 빌고 같이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여성들의 축제로서 서로의 응어리를 풀고 일체감을 조성시킨 의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통합 기능까지 수행했다.<sup>25)</sup>

대략 제주문화의 모체로서의 공동체의식을 살펴 보았는데 이제 공동체의식의 특징과 성격을 정리해 보겠다.

우선 삶과 문화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삼무의 문화는 제주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서로의 해석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됐고, 이러한 의미들은 사람들의 공동의식으로 구성 발전되어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문화로 표출된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24) 宋成大, 앞의 글.

25) 玄宥駿, 앞의 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기적 일체성을 경험할 뿐더러 자연환경과의 애착을 느끼고, 이러한 삶의 경험과 의식이 내면화되어 사회적 행동을 구체화시키고 그 결과 이성적 자각을 터득하게 되고, 이러한 이성적 자각을 일깨워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는 전체의 이익을 포용하는 합리적인 규범을 창조하고 구조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삼무의 문화는 외적 환경의 필연적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어진 인간적 삶의 내적 진리를 보편화시킨 원리로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인간관은 적극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성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인간관계는 평등성 보다는 차라리 사랑과 헌신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리라는 이해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어도〉 신화의 경우가 보여주는 삶과 죽음의 변증법적 이상화(理想化)에는 어려운 삶을 극복해 보려는 적극적 의미와 의도가 숨어있는 듯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의 경험을 극복하려는 공동체적 지혜가 내재하는 것 같고, 사랑과 헌신의 인간관계의 표현을 승화시킨 것이 아닐까 한다.<sup>26)</sup>

세째 사회적 규범으로서 문화가 형성되었을 때 규범은 개인을 강하게 구속하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에 개방적인 면 못지않게 폐쇄적인 면이, 진취적 성격 못지않게 보수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도 강하다. 제주사회에서의 소문의 역할을 보면 공동체적 규범으로 부터 일탈하는 행위를 방지해 주기도 하지만 개인의 개방적이고 다양한 행위를 구속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6) 高銀, 《濟州島: 그 全體像의 發見》 (서울: 일지사: 1976), pp.24-72.

대체로 이어도의 신화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어도의 신화는 오히려 고통스런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보여지며, 희생적인 인간관이 거기에 배어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네째, 삼무의 문화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거지없음이 우선되는 힘이고, 그 다음으로 도둑없음이고, 대문없음은 두가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제주도의 민요를 보아도 개인의 근면과 자립을 강조한 노동요가 많은 것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거지없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제적 자립정신을 강조한 공동체의식을 표현한 것으로서 조냥정신의 체질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도둑없음은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율을 소극적으로나마 실천한 공동체의식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대문없음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자율이 형성된 결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대문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자율에 방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율은 마을단위의 정치적 자치를 통해 체질화 된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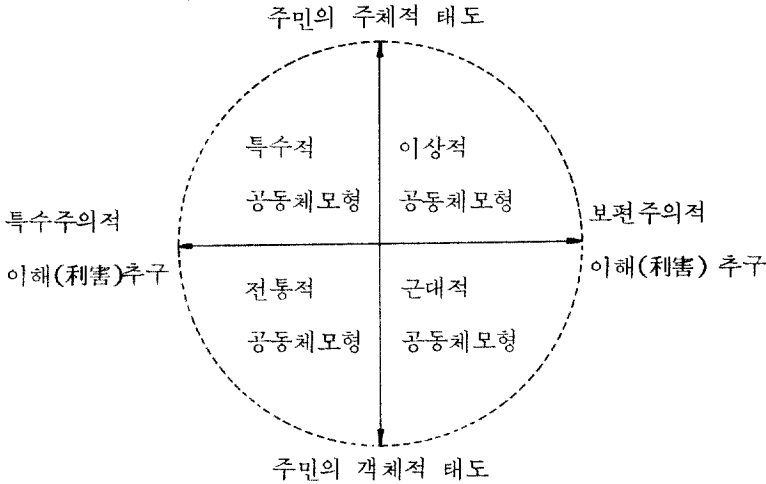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없는 세계를 표상화한 삼무의 정신은 소극적인 표현일 뿐더러 표면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있는 것, 즉 삼유(三有)의 정신으로 해석되는 게 온당한 해석일 뿐더러 심층적인 것이 아닐까 한다. 삼유의 정신은,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독립,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자율, 셋째 정치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자치로 표상화 되는 것을 뒷받쳐주는 공동체의식의 심층적 의미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공동체의식의 변증법적 의미는 공동체의식을 살릴 수 있는 “있는 세계”와 연결되고 통합될 때 제대로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다섯째, 네번째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문화의 거시적 준거틀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문화의 형성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구조의 통합적인 활동을 통해서 가능한데, 제주도의 문화는 중앙체제에의 정치적 예속과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타율의 구조적 상황을 극복해 보려는 공동체적 노력이라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철주조의 민란이나 성

교란(聖敎亂)의 경우에도 제주도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정치·경제·문화적 종속화를 통한 위협에 대한 끈질긴 항거의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sup>27)</sup> 대정 몽생이란<sup>28)</sup> 저주적인 표현도 이러한 항거와 관련하여 생성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케 한다.

제주문화의 핵심인 공동체의식의 의미를 다섯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 제주문화의 공동체의식의 성격은 어떠한가를 표3을 이용하여 생각해 볼까 한다.

표 3. 공동체의 모형



27) 金鎮鳳, <哲宗朝의 濟州民亂에 關한 研究>, 《傳統時代의 民衆運動》, 풀빛사편, (서울: 풀빛사, 1981), pp. 411~431.

28) 몽생이란 못된 망아지란 뜻을 지닌 사투리인데, 이 말의 생산된 과정과 의미를 미셀루끄의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체제에 도전적인 대정 사람들을 저주스럽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증을 갖게 한다.

韓相震, <構造主義의 方法論: 미셀 루끄의 再構成的 解體의 戰略을 中心으로>, 《사회과학 방법론 비판》, 청람사편, (서울: 청람사, 1983), pp. 131-158.

공동체의<sup>29)</sup> 모형을 주민들의 태도가 주체적이나 객체적이나와 공동체 조직이 추구하는 이해가 지향하는 바가 보편주의적인지 특수주의적인지에 따라 구성해 보면, 첫째 이상적 공동체 모형, 둘째 특수적 공동체 모형, 셋째 전통적 공동체 모형, 넷째 근대적 공동체 모형의 유형화가 가능하다.<sup>30)</sup> 이러한 모형에 비추어 볼 때 제주도의 경우 특수적 공동체 모형에서 출발하여 이상적 모형으로의 이행을 어느 정도 모색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말하자면 주체적 삶을 통하여 특수한 이해를 추구하는 데서 출발하여 보편주의적 원리와 이해를 추구하는 이상적 모형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모색한 것이 아닌가 한다.

## 5. 제주문화의 퇴색요인과 갈등

농경사회를 살면서 제주인이 형성해 낸 자랑스러운 문화는 한국사회의 구조가 산업화로 바뀌면서 변화하고 퇴색해 버렸다. 제주문화의 퇴색은 상황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상황적 요인으로는 4.3사건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그 당시의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1947년 3.1사건, 1948년 2.7사건, 같은 해 4.3사건으로 토벌이 시작되어 1949년 3월 30일의 피해상황은 제주도의 4백 부락중 2백 95부락 전소, 가옥 1만 3천 2백 50호 소실로 된다. 그러나 또다른 발표에 의하면 주택은 11만 7천호중 소실된 가옥이 3

29) 여기서의 공동체는 마을 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노력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일을 차면서 상부상조하고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발전·유지하는 조직으로 이해하여 쓰고 있다.

30) 宮崎辰雄, <코시코네이 행정의 課題と 展望>, <코시코네이 행정의 理論と 實踐>, 神戸都市問題研究所編, (神戸市: 勁草書房, 1980), pp. 18 ~ 40. 이 모델은 이 논문에서 착안하여 구성해 본 것이다. 각 모형에 대한 주체적 설명은 생략했는데 차후에 하도록 하겠다.

만 5천 5백호 죽은 가족이 4만 6천필, 전도민의 1년간 생업 중지, 5천명 해녀의 휴업, 20여 대소 공장의 휴업등으로 된다.<sup>31)</sup> 제주도에 대한 4.3사건의 내상(內傷)은 수천년을 쌓아온 공동체를 허물어 버렸으며 제주문화를 해체하려는 지진과 같은 것이었다.

구조적인 퇴색요인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구조와 경제적으로는 중앙중심적 자본주의 구조와 사회적으로는 산업화에 따른 지역간의 격차와 문화적으로는 문화수용의 불명등과 전통문화의 쇠퇴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에서 야기되는 큰 문제는 전통적인 제주농촌사회, 즉 마을공동체의 해체현상(解體現象)을 들 수 있다. 농촌 공동체부락의 기능은 노동분화와 재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상호부조와 같은 경제적 기능, 행정단위와 일차집단으로서의 기능, 사회통제적 기능, 종교적 혹은 문화적 기능등이 있다. 이와같은 농촌부락의 사회·경제적 기능은 제주사회의 구조를 설명하는 준거들이 되어왔다. 그러나 제주농촌부락의 경제적 교환관계는 부락 외의 시장경제체제로, 또 농협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등 새로운 사회적 조직체나 제도의 도입 확산으로 점차 부락외의 더 큰 지역사회로 이관되어 가게 됐다.<sup>32)</sup> 우리나라의 경우에 20년간 줄곧 도시화와 산업화가 추진되고 이와 제도를 같이하는 관료화라는 사회변동을 겪어왔고, 그 결과 농촌사회도 계속하여 개방되어 왔고, 외부세계에의 의존도가 높아져 과거의 자급자족적이고 고립적인 농촌공동체의 개념으로 농촌사회를 이해하는 데 유용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의 농촌사회는 첫째, 부락, 리, 면, 군등의 지역적 단위를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중앙집권적

31) 朴泰洵, 《國土와 民衆》, (서울: 한길사, 1983), p. 348. 여기서 또 다른 발표는 제주도지사의 발표이고, 군사평론가 김점곤의 통제는 이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2) 金東一, <도시화와 농촌개발의 제문제>, 《現代社會》, 1983. (가을호), pp. 27 ~ 45.

행정체제와 둘째, 상업적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 그리고 끝으로 행정적 경제적 체제외의 농촌 공동체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관계의 체제이다. 따라서 과거에 주로 친족이나 이웃 관계에서 제도화되어 있던 사회관계가 다양화되고 지역적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문화적 동질성도 상실되어 가고 농촌사회에서의 사회관계와 인간의 결속은 약화되어 가고 있다.<sup>33)</sup>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앙과 지방간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격차를 심화시켜 버리고 말았다. 문화의 시각에서 볼 때 전통적 문화를 해석활동을 통해 분별있게 계승 발전시키기 보다는 산업화에 따른 물질문화나 대중문화의 힘에 압도되어 버리고 더욱 이 선조들의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결과 삶의 경험과 의미를 해석하고 개개인의 의도를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문화의 힘은 상실되는 것이다. 이 상태를 흔히 전통적인 요인과 외래적인 요인의 혼재상태라고 표현된다.<sup>34)</sup> 제주문화에 있어서의 이러한 현상은 미시적으로 볼 때 삶의 경험과 의미가 문화와 단절되어 삶의 의미가 위축되고, 거시적으로 볼 때 문화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구조로부터 격리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제주문화의 공동체의식은 지역개체적 태도와 특수주의적 이해의식에 치우치는 전통적 아노미형 의식 모델이나 지역개체적 태도와 보편주의적 이해의식이 결합된 근대주의적 개체형 의식모델 정도로 강요될 가능성을 갖게된다. 이러한 제주문화의 공동체의식의 해체되는 현상과 관련시켜 이제 현실적인 몇가지 운동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이 제주문화에 무엇을 가

33) 윗글.

34) 韓相震, 앞의 글.

저다 주었는지를 보아야 한다. 한국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농촌 내부의 의식개혁과 구조적 혁신이란 목표를 내세우면서 새마을 운동은 진행되어 농촌개발의 활성화 수단으로 진척시켜 왔다. 이러한 새마을 운동은 농촌사회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높여 주었으나 사회적 자율과 정치적 자치는 오히려 낮추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새마을 운동의 특성은 마을 단위에서의 농민들의 정신개발, 마을 환경의 개선 및 농촌 노동력과 자본의 동원에 의한 마을 하부구조 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은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있는 개발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 보다는 수도 서울과 산업도시 중심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구되었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sup>35)</sup> 따라서 새마을 운동의 이념적 구호인 근면·자조·자립을 삼무의 정신과 일치시키는 것은 무리한 도시화라고 생각된다. 이 운동이 제주문화에 기여하려면 경제적 독립, 사회적 자율과 정치적 자치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시켜야 하리라 여겨진다.

둘째, 문화운동의 측면에서 제주문화의 대명사격인 한라문화제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된다. 23년의 연륜을 쌓아온 제주문화의 축제가 전통적인 문화를 통해 선인들의 삶을 느끼고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목표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場)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우선은 한라문화제가 전통문화의 상징체계의 상징적인 전승을 제대로 제시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운동으로서 한라문화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문화를 창출하지 못한채 일상생활과 유리된 형식적인 행사일 뿐더러 관주도의 하향식 행사로 구조화되는 점이다.<sup>36)</sup> 따라서 한라문

35) 金東一, 앞의 글.

36) 김건일, <아쉬운 도민의 문화잔치: 제 23회 한라문화제>, (濟大學報: 1984. 10.29).

화제가 제주도민의 전체적인 참여 속에서 지나간 시대의 문화의 의미를 현재적으로 만나고 해석하고 내일의 문화를 모색하는 축제로 승화되려면 문화의 상징적 가치체계의 개발과 주민의 참여를 진작시키는 사회구조의 마련이 뒤따라야 제주문화의 사회적 자율과 정치적 자치력을 복돋아 주는 전도민의 행사가 될 것이며 제주문화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세제, 문화운동으로서의 마당극 운동이 제주문화에 끼치는 의미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운동은 탐라를 행정적 주변이고 문화적 변방이 아니라 민족의 얼과 맥박이 살아 움직이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토로서의 주체적 인식을 토대로 전통문화의 새로운 활력과 외래문화의 극복이란 문제의식으로 실천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마당극을 보면, 첫째 “돌풀이”는 제주민란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통하여 제주도민의 역사의식을 현재적 의미로 만나게 하며, 둘째 “항과두리놀이”는 삼별초의 난에서 제주도민의 저항의식을 보여주며, 셋째 “땅풀이”는 정치·경제적 구조의 모순에서 야기된 토지문제를 떠올릴 뿐더러 공동체의식의 근거인 땅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넷째 “중녀풀이”는 제주문화의 주축인 해녀의 어려운 삶과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극복하려는 저항의식 및 이러한 현실에 무감각할 뿐더러 한계점을 보이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sup>37)</sup>

이러한 마당극운동은 제주문화의 본질을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대적 해석과 조명을 모색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이 제주문화의 전승을 실험하는 살아있는 장(場)이 되려면 지식인 중심에서 일반 주민으로까지 참여의 폭이

37) 蔡熙完, <70년대의 文化運動: 민속극 운동을 중심으로>, 《文化와 統治》, 民衆社편, (서울: 민중사 1982), pp. 168-219. 그리고 각각의 마당극 대본을 입수하여 참조했음.



넓혀져야 될 뿐더러 주제의 다양화도 요망된다.

네째, 아직도 살아 남은 공동체의식을 보존 발전시킬 뿐더러 사회구조적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산간 지대의 소길리나 서광리의 공동목장이나 해안가의 공동어장 운영을 통한 나름대로의 공동체적 지혜와 경험이 제대로 자리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뿐더러 현재의 사회구조와 연결시켜야 하리라 생각되어진다. 소길리의 경우를 볼 때 세번이나 마을이 해체되었지만 다시 마을을 형성했고, 마을의 동네 중심으로 세개의 공동목장을 운영할 뿐더러 마을공동의 유산으로서 공동목장조합을 소중히 보존 운영하고 있다. 공동목장의 운영계획은 음력 정월 보름을 전후해서 열린다. 그 회의에서 조합장 부조합장등의 임원을 선출하고 조합원들이 하루단위로 소를 둘 불 순서를 정하여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삶은 4.3사건의 충격에도 꺾이지 이어져왔고, 산업화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공동목장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기에 공동체적 삶은 살아남은 것이다. 아울러 향회도 년초를 고비로 매년 열리는데 마을사람들의 전체적인 참여속에서 마을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sup>38)</sup> 따라서 소길리의 경우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자율과 정치적 자치의 공동체의식을 나름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게 한다.

## 6. 제주문화의 과제

이렇게 제주문화의 핵심을 공동체의식으로 정리해 볼 때 공동체의식을 살리는 문화의 과제는 <지금 여기에서>와 내일이라는 미래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문화는 보다 나은 삶의 필요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38) 고팡민, <소와 함께 살아온 소길리>, 《관광제주》, 1984.11, p.110 ~ 114.

여기서의 과제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종합화 시키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가 이미 보아온 것처럼 제주문화의 공동체 의식은 지리적 환경적 악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표출시킨 제주도민의 삶의 지혜의 결정체이며, 거시적 구조의 모순을 극복해 보려는 삶의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없는 세계”로 특징화되는 삼무의 정신은 “있는 세계”의 적극적 의미-개인적 차원에서 경제적 독립정신,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율정신, 정치적 차원에서 자치정신-를 지닌 삼무의 정신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할 뿐더러 이를 현실적으로 수용하는 정치·경제·사회적 구조의 모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공동체 의식이 의미있는 것이더라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과정과 구조가 이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민중들의 삶의 세계가 파괴됨은 물론 건강한 문화의 형성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과 문화의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의 바람직한 조화를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전통적 공동체 모형이나 근대적 공동체 모형으로의 퇴색을 방지하고 최소한 특수적 공동체모형을 살려서 이상적 공동체모형으로의 모색을 도모해야 한다 (표 3).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근본 모체인 지방자치의 실시의 문제가 제기되는 빌미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이 글의 분석의 기초에 근거하여 두개의 현실적인 과제를 오늘날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제주문화의 해석을 내일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원화된 산업사회 속에서 문화가 독특성을 지니면서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오늘과 내일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단순치 않으며 이 글의 범위 밖의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가 올바른 기반 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면 제주문화의 재건의 방향도 어느정도 명백하게 모색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즉, 중앙 중심의 문화체제에 예속되고 이에 의해 제주문화가 흡수되고 퇴

색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주문화의 독특한 활력을 되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주장하는 것은 제주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한라문화제, 마당극운동, 새마을 운동등과 공동체의식의 경험과 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례들을 현실적이고 처방적인 관점에서 제주문화의 재건에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 6. 맺는 말

이 글은 지금 이 땅에 매여 사는 한 사람으로서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제주문화의 뿌리인 공동체의식과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해석해보는 것이었다. 이 글이 시론적인 것인 만큼 준거틀의 명백화라든가, 지방자치와의 관련이라든가 경험적 자료를 첨가하는 등등의 연구과제가 숙제로 남게 된다.